
한국 고전 번역의 산실 <한국고전번역원 이동환 원장을 찾아서>



답변자: **이동환**(한국고전번역원 원장)

질문자: **차익중**(서울대학교 강사)

때: 2011년 8월 11일 오후

장소: 한국고전번역원 원장실

숲 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으니
 시인의 생각 끝없이 일어나네
 멀리 보이는 저 물빛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햇볕 받아 붉구나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 내고
 강은 만 리 바람을 머금었네
 변방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가
 저녁 구름 속으로 소리 사라지네

깊은 가을, 문득 일어난 느낌과 생각을 읊은 시다. 누구의 작품일까?
 울곡 선생의 작품이다. 그것도 8세 무렵에 지었다는 ‘화석정(花石亭)’이
 다. 물론 본래는 한문으로 쓰인 한시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작품을 얼
 마든지 우리말로 감상할 수 있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작품을 원문(林亭秋已晚 騷客意無窮 遠水連天碧 霜楓向日紅 山吐孤輪
 月 江含萬里風 塞鴻何處去 聲斷暮雲中)으로만 접한다면 그 느낌은 고
 사하고 내용이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1%도 되지 않는다
 면 과장일까?

이렇게 한문으로 된 우리 고전을 우리말로 옮길 뿐 아니라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료로도 함께 내놓는 전문 기관이 있
 다. 바로 ‘한국고전번역원’이다. 1965년 민간단체로 출범하여 40년 남짓
 고전 번역 사업에 노력해 온 ‘민족문화추진회’가 국가 기관으로 새롭게
 바뀌면서 지금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고전번역원의 공식
 적 출범은 2007년이지만, 고전 번역 사업의 역사로 보면 민족문화추진
 회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같은 국
 가 기록은 물론 《계원필경》(최치원), 《퇴계집》(이황) 등 개인 문집의
 번역도 모두 이 고전 번역 사업의 결실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와 문화
 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고전번역원의 인터넷 누리
 집(<http://www.minchu.or.kr/>)이 ‘즐거찾기’ 1순위로 자리 잡아 왔다. 앞

에서 감상한 시도 고전번역원에서 운영하는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에서 율곡 선생 편을 검색하면서 손쉽게 얻었다.

고전의 ‘번역’ 역시 ‘우리말 창고’를 가꾸는 일로써 손색이 없다는 생각에서 북한산 비봉길 어귀에 자리 잡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찾았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한국고전번역원’까지

차익종: 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한국고전번역원장으로 취임한 지 반년이 조금 넘으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리셨는지요?

이동환: 한숨을 돌리긴요(웃음).

차익종: 그만큼 바쁘신가요?

이동환: 사실 저는 고전 번역 사업과 학생 때부터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민추(민족문화추진회)’ 시절에 한문 연수를 받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는 번역 전문 사원으로 일도 했었고, 대학 전임 교수가 되면서부터는 외부 번역자로 일했고, 기획 편집 위원이나 이사 일도 맡았었는데…….

차익종: 부임하셨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셨겠군요.

이동환: 그랬죠. 그래서 인연이 깊은 만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었지만, 막상 일을 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번역자로서 접하는 부분밖에 몰랐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지요. 번역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얹힌 문제, 조직의 직제와 운영, 그리고 온갖 규정 등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셈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또 항상 궁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보니 쉴 틈이 없습니다.

차익종: 민주 때부터 이어져 온 고전 번역 사업의 자취를 살펴보면 ‘참 열심히 해 오셨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을 1970년에 시작하셔서 23년 만인 1993년에 끝냈고, 뒤이어 《증정원일기》 번역 사업, 《계원필경》, 《동국이상국집》, 《퇴계집》 같은 개인 문집을 담은 《한국문집총간》 350책 발간 등등……. 그동안 인문학계나 문화예술계, 언론계에서 “제대로 된 고전 번역이 없다.”라고 탄식을 거듭해 왔었는데 “이제 이 정도는 해 놓았다.”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동환: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차익종: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시고 싶은 일이 많아서가 아닐까요?

이동환: 잘 보셨습니다. “번역원이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혹은 “이상적인 번역이라면 이러저러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어서겠지요.

고전 번역과 우리말

차익종: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 번역의 모습’을 듣기 전에 우선 《새국어생활》의 독자들이 궁금해할 이야기부터 먼저 나눴으면 합니다. 독자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한문 고전의 번역과 현대 한국인들의 ‘우리말글살이(언어생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문 번역 사업이니까 한문학, 한학의 소관이지 우리말 가꾸기와 특별한 관계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동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훈민정음의 창제와 함께 꼭 기억해 둘 일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와 동시에 역점을 기울여 하신 일이 바로 불경이나 교화서, 의서 같은 한문책을 당시 조선 사람이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두보 시집도 여러 차례 언해되었지요. 이런 번역문이 우리 언어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한말의 성경 번역도 우리말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번역이란 어디까지나 현실의 언어에 신세를 지며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랜 가치를 지닌 고전이라도 오늘날의 언어를 업지 않고서는 새로 살려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번역된 것도 결국 우리말과 관련된 자산이니까 우리말에 새로운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 이것이 '좋은' 영향이 되려면 우선 번역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단일하거나, 번역된 책의 사상과 내용, 정서가 대중의 머릿속에 통일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날의 고전 번역 사업이 우리말에 좋은 영향을 주는 수준이 되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차익중: 우리 고전 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이동환: 가령 퇴계 이황 선생의 문집인 《퇴계집》 같은 것은 여러 개의 번역본이 중구난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역이 난립되기보다는 우수한 번역 한 가지가 있어서 일종의 표준 노릇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언어생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웠습니다. 두보 시의 번역집인 《두시언해》도 한 가지 판본을 낸 뒤에, 그것을 고치고 또 고쳐 내기를 거듭했지요.

여기서 북한의 번역을 떠올리게 됩니다. 북한은 책 하나에 번역을 한 가지씩만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정갈하게 번역을 다듬었습니다. 한 팀이 번역을 맡아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고쳐서 내놓는 것입니다. 북한이 《조선왕조실록》 번역을 끝낸 것이 1981년인데, 실제 책을 낸 것은 1991년입니다. 번역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기간이 10년이었던 것이지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중구난방입니다. 물론 다원화된 사회니까 그렇겠지만, 번역자의 눈으로 보면 아쉬운 면도 있지요.

우리 고전의 특징이라면

차익종: 화제를 잠시 돌리려 합니다. 고전번역원은 결국 ‘고전’을 번역하는 곳일 텐데, 고전번역원에서 생각하는 고전은 어떤 것입니까? 특히 한문 고전은 흔히 《논어》·《맹자》·《사기》와 같은 중국 고전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땅에서 우리 마음과 손으로 쓰인 것도 역시 고전으로 연구하고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관찬 기록은 물론 개인 문집도 모두 고전의 반열에 올라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이동환: 고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정의를 내려 볼 수 있겠지요. 좁은 의미의 고전이라면 시대를 초월해서 재해석이 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고요, 넓은 의미의 고전이라면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전번역원의 번역 대상이 되는 책은 뒤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익종: 같은 한문 고전 중에서도 중국 고전과 우리 고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동환: ‘문(文)·사(史)·철(哲)’을 나누어서 보면 역사는 우리 역사이고, 우리 민족의 삶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경우는 중국과 처음부터 다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 역사가 곧 우리 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이나 문학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본’이 있고, 거기서 파생된 저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고전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고전의 상당 부분은 이렇게 파생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인들이 중국 경전을 읽고 내놓은 것이니까요.

차익종: 직접 번역을 하시다 보면 느낌도 달리 오지 않을까요?

이동환: 우리 고전이 중국 고전에 비해 문체도 조금 다르지요. 응축된 맛

이 덜하다 할까요. ‘초술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차익종: 거칠고 소박하다는 뜻인가요?

이동환: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 민족의 미학이 아닌가 합니다. 중국과 똑같다면 우리 것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내용으로 보면 ‘원본’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도 독특한 느낌이 옵니다. 표현이나 감각이 우리 것이지요. 그런 것이 우리 고전으로서 알맹이가 되는 법인데, 이런 감각까지 살려 내서 번역해야 하지요.

사실 다 같은 한문이라 해도 저마다 문체가 다릅니다. 가령 연암의 글은 산문도 몇 자씩 끊어서 지었기 때문에 글의 템포가 적당하게 빠르면서 독특한 감각을 발휘합니다. 이것을 현대 우리말로 옮길 경우 이런 느낌도 살려야죠.

차익종: 현대 우리말로 옮기는 부담이 크겠군요.

이동환: 아주 크죠. 왜냐하면 한문 문체 감각을 우리 감각으로, 엇비슷하고 대칭되게 번역해야 되거든요. 문체와 문체끼리 소통이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번역이란 결국 고전을 현대 작품으로 번역하는 것이니, 살아 있는 지금의 언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한문은 사실 죽은 언어, 문헌어입니다. 제가 쓰는 비유로 말하면 ‘그 혼은 살아있지만 육신은 화석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번역은 죽은 언어를 살아 있는 현대 우리 언어로 옮기기 위한 노력이지요.

차익종: 그러기 위해서는 한문 해독 능력뿐 아니라 우리말다운 문장이나 표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할 텐데요, 고전번역원의 한문 교육 과정 안에 이를 다루는 내용이 있나요?

이동환: 우리말 실력을 강조하긴 하지만, 아직 공통된 과정은 없고 각 번역자나 교육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상적 번역의 구상

차익종: 이제 맨 처음 원장님이 던지셨던 화두로 돌아가야겠군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번역 사업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동환: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진 번역, 이것을 저는 ‘잘 기획된 번역’이라고 말하는데요, 잘 기획된 번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번역할 책을 확정하는 과정부터 잘되어야 합니다. “이 책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고전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첫 단추를 충실히 끼워야지요. 다음에는 용어 문제를 합의해야 합니다.

차익종: 용어 문제라면?

이동환: 역사서, 문학서, 철학서 등 분야별로 특수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 중 어떤 것을 한자어로 간주해서 쓰고 또 어떤 것을 현대 우리 말로 풀어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번역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면 비로소 한문에 식견이 높은 우수한 번역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우수한 번역자라면 먼저 철학, 역사, 문학 등에 자기 전공 분야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한문 실력이 뛰어난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역이 없을 분, 혹은 오역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가 되는 분을 찾아 일을 맡겨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번역의 정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차익종: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상적 단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고전 번역이 아직까지 ‘부업 번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익종: ‘부업 번역’이요?

이동환: 그것도 제 용어인데, ‘전업 번역’의 반대를 뜻하지요. 번역을 자기 직업으로 하는 분이 적다는 것입니다. 민초 때부터도 물론 전속으로 번역만 하는 분들도 있었긴 했지만 외부에 있는 역자의 비중이 더 컸습니다. 가령 어떤 책을 번역해야겠다 하면, 이것을 여러 사람이 찢어발겨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업 번역에 주로 의존하게 됩니다.

차익종: 처우가 열악해서 그리 되는 것인가요?

이동환: 그것보다는 번역 마감 시한을 정해 놓고 급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번역해서 정부에 제출하는 시한을 지켜야 번역비가 나오니까 혼자서 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지요. 그 시한은 대개 1년입니다. 1년이란 너무나 촉박한 시한이지요. 그러다보면 부업 번역 위주로 될 수밖에 없지요. 설사 혼자 하더라도 번역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기회나 공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한에 쫓겨 부업 번역에만 의존하면 힘듭니다. 그나마 지금은 2년짜리도 생겼고, 어느 정도 전업 번역 쪽으로 방향을 틀고는 있지만 갈 길이 멍니다. 번역 인력의 질도 아직 이상적 번역을 요구할 단계가 아니기도 하고요.

차익종: 한문 실력이 우수한 분이 적다는 말씀인가요?

이동환: 자기 전공을 하고, 번역을 감당할 만한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우리 고전 번역 사업은 양으로 따지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번역해 낸 것이 모두 140여 종, 1,200여 책입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30~40종 130여 책을 번역해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확 불어났지요. 양이 불어난 만큼 우수한 번역이 되도록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권역별 거점 연구소 협동 번역 사업’이라 해서 지방 연구소에도 번역을 맡겼는데, 그만큼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만 되지요.

차익종: 현재 전문 번역 인력은 몇 분이나 되나요?

이동환: 지방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140여 명 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10명 정도가 자연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10년, 20년 뒤에는 현재의 번역 인재들이 대부분 은퇴하게 될 텐데, 적어도 그만큼의 인력은 해마다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표를 더 크게 잡아서 해마다 우수 인재가 15명 내지 20명 정도는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차익종: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재 양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환: 우리 번역원 안에 있는 고전번역교육원이 그것이지요. 또 지방 분원도 세웠지요. 현재 전주에 두었는데, 올해에는 밀양에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력이란 것도 갑자기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한문 번역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먼저 각 대학의 문·사·철 전공자 또는 한의대나 이공계 등 특수 영역 전공자 가운데 특별히 한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점점 학부 한문학과 출신 인력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익종: 한문학과가 중요하겠군요.

이동환: 그런데 한문학과에서 한문 교육을 충분히 받고 들어오느냐. 사실은 현재의 한문 교육 제도에서는 부족합니다.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나서도 여기 고전번역원의 연수 과정에서 3년 내지 5년, 더 길게는 7년까지 이어지는 전문 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겨우 일을 맡을 만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학부 한문학과 졸업 이수 130학점 중 전공 관련 학점이 70학점 정도인데, 이 정도로는 한참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한문 문헌에는 사서삼경은 물론 역사서도 포함되고 또 우리 선조들의 문집 등 그 종류가 한없이 많습니다. 죽도록 노력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대학에서 겨우 《논어》 대여섯 편, 《맹자》 몇 편 읽고 졸업을 하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부설 교육원을 세운 것도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차익종: 요즘 한문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이동환: 옛날식입니다. 어차피 한문을 배우는 방법은 옛날의 도제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문장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차익종: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터득이 되겠군요.

이동환: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도 쉽지가 않은 것이 한문입니다.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빨리, 많이’에만 초점을 맞추는 식은 번역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요.

번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차익종: 그러면 실제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문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 같은 문외한도 제법 이야기를 듣는 편인데요, 가령 끊어 읽기가 어렵다든지, 고유 명사를 구분하기 어렵다든지…….

이동환: 잘 아시는군요.

차익종: 그래서 번역을 1차, 2차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동환: 아마 ‘표점 넣기’를 말하는 것 같네요. 한문은 띄어쓰기도 없고 문장 부호도 없으니까 번역을 위해서 먼저 문장을 나누고 끊어지는 부분을 표시해 두면 번역의 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차익종: 주로 구두점, 그러니까 쉼표와 마침표를 표시하는 것인가요?

이동환: 구두점만이 아니라 따옴표, 쌍점, 느낌표, 물음표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점을 넣는 과정을 먼저 거치면 번역의 질이 훨씬 좋아 집니다. 두 번 거듭 읽는 것이니까 문장 내용을 그만큼 잘 파악하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승정원일기》와 문집 한두 가지에 시험 삼아 해 보았죠. 효과가 좋아서 올해부터는 지역 거점 번역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익종: 표점 넣기와 번역을 두 사람이 나눠서 맡는다는 것인가요?

이동환: 아니, 번역자 한 사람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차익종: 아, 동일한 번역자가 단계별로 하는 것이군요.

이동환: 번역 심사를 할 때 표점을 넣은 것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점이 있는 부분과 번역 문장을 동시에 검토하게 되지요.

차익종: 은퇴하신 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표점 작업자와 번역자가 다르다고 하시던데요.

이동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령 《승정원일기》는 번역부터 먼저 나왔어요. 그 후에 표점 표시 작업을 했지요. 이 경우는 따로 일을 한 셈인데, 앞으로 새로 번역하는 문집은 번역자가 표점 표시 작업을 먼저하고, 번역을 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했어요.

차익종: 그런 단계를 일일이 거쳐서 번역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번역 분량과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이동환: 번역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번역원에서 일하는 분들의 경우 한 달 평균 번역량이 200자 원고지로 200매 정도인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주말을 빼고 나면 하루 평균 8~9매, 10매꼴인데, 어떤 경우에는 한 구절에 부딪혀서 며칠 동안 해결을 못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너무 벅잡니다. 사실 번역하는 우리들 생각으로는 한 달에 150매 정도 하게 해 주면 번역다운 번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바라지요.

차익종: 보람을 느끼면서도 고달픈 일이라 할 수 있겠군요.

이동환: 그렇습니다. 쫓기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을 대폭 줄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실정인데, 처우가 아주 열악합니다. 현재 고전번역원의 처우는 우리나라 공공 기관 총 283개 중 260등일 정도로 열악합니다. 이걸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문제라서…….

차익종: 번역의 어려움에 대해 한 가지 더 여쭙 보면, 고유 명사 중에서도 ‘전거’라는 것이 특히 또 어렵다고 하던데요.

이동환: 그렇죠. 중국 문헌이나 우리 문헌 모두 전거는 원래 어렵습니다. 우리 문헌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역사에 뚜렷이 드러난 인물이 아닌 경우, 이 사람이 정말 중국 사람인지 우리나라 사람 인지는 조사를 해 봐야 하는데 쉽지가 않지요. 그래도 요즘에는 컴퓨터가 발달해서 검색이 다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전거’라는 것도, 보편적으로 쓰이는 우리 전거는 적은 편입니다. 가령 퇴계가 도산서원에서 보인 어떤 행적이 전거가 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것이 퇴계학과 안에서만 쓰이지, 퇴계학파를 넘어서 전거로 쓰이는 경우가 적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폐단입니다! 객관성 있는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같은 집안 자손이거나 같은 학파만 택합니다. 파벌을 넘어서 함께 존경하는 인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학파 외에도 상대 학파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조상이 내 조상보다 뛰어나면 존경을 해야 하고, 내 학파 선생 외에도 상대 학파 선생에게 장점이 있으면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객관성 있는 인물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니다.

선조 때 권문해 선생이 편찬한 《대동운부군옥》이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우리 전거를 모아 놓은 사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도

실제로는 별로 쓰이지 못하고 말았지요.

차익종: 전거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역사, 사상사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중요한 말씀으로 새겨들어야겠습니다.

이른바 번역어투에 대해

차익종: 그런데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번역어투’인데요, 가령 지난번 어떤 공청회에서 보니 ‘시석(矢石)’이란 말을 ‘화살과 돌’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켰다든지, ‘則’은 항상 ‘즉’으로 ‘以’는 항상 ‘써’로만 옮겨 놓는다든지 하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동환: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번역이 좋은 점이 뭐냐면, 현대 국어로 최대한 풀어 쓴 것입니다. 사실 ‘시석’을 ‘화살과 돌’로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려 합니다.

차익종: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무조건 구어적으로 풀어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동환: 그런 의문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한문이란 것이 본래부터 문어인데, 무조건 구어체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어로 해도 좋은 쉬운 한문도 있어요. 말하자면 조선 후기에 오면 ‘한문 단편’이라고 해서, 짤막한 서사문들이 많이 있어요. 《청구야담》, 《해동야언》 같은 책은 어순도 우리말과 비슷할 정도로 구어적입니다. 그 자체가 구어에 가까우니까 구어로 번역을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원문이 문어인 것은 문어의 성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번역된 책들도 완전한 구어체를 채택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역시 문어에 가깝지 구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차익종: 자연스럽게 북한의 고전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군요. 사실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고전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높이 평가하는 분도 있는 반면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이동환: 모범적인 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현대어를 살려서 옮겼지요. 문제는 오직 한글로만 옮겨 놓다 보니, 북한 번역본을 보면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어인데 그대로 한글로만 풀어 써 놓은 것이 많아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대신 ‘어려운 말’을 따로 모아서 풀이해 놓았습시다만, 일일이 찾아보기가 불편합니다.

대상 독자에 따라 번역도 달라야

차익종: 번역을 하실 때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십니까?

이동환: 고전번역원에서 생각하는 독자는 대체로 학문 연구자와 일반 교양인의 중간입니다. 그렇지만 더 젊은 세대까지 읽을 수 있도록 현대화된 번역을 내놓아야 합니다. 가령 《퇴계집》을 그대로 번역한 것은 웬만한 사람이 읽을 수 없습니다. 고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독자가 자발적으로 읽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자발적으로 읽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번역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의 번역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나와야죠.

차익종: 새로운 번역이란 어떤 것인가요?

이동환: 번역이란 결국 원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요. 원문은 하나 있지만, 보는 견해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자기가 보는 바를 목표 언어로 생산한 것이 곧 번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텍스트에 대한 번역이 여럿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식 번역 작업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네요. 정말 위대한 고전이라면 다양한 번역이 나와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건대,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번역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익종: 실제로 금년 사업 계획을 보니까 번역도 연구자용과 풀어 쓴 대중 교양용, 이렇게 이원화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동환: 가장 바람직한 번역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한문에 구두점을 찍어서 직역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런 번역은 한문하는 사람, 전공자들을 독자로 삼는 것인데, 가능하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서 읽을 때에 원문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의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원문을 벗어나지 않고 그 틀 안에서 나와야죠. 셋째는 청소년을 위한 번역입니다. 지금의 번역은 이들 세 가지, 최소한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국어 정책에 바라는 점

차익종: 바람직한 국어 정책을 위해서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동환: 요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인명이나 지명을 현지음으로 마구 표기하고 있더군요. ‘저장성’이 뭐가 해서 한참 생각해 보니 ‘절강성’이란 말입니다. 저도 한자 관련 심의 위원인데, 저 같은 심의 위원도 모르는 표기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이동환’이 아니라 ‘리똥환’으로 불리고, 일본 사람들은 저를 ‘이또칸’이라는 식으로 불러 줍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요즘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짓대 없는 짓을 빨리 고쳐야 하는데…….

차익종: ‘풍신수길’이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쓰지요. 심지어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까지 현대 중국음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표기는 고전번역원의 철학과 다른 것 같습니다. 번

역이라는 것은 자기 언어로 세계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니까, 번역을 중시하는 태도를 ‘번역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반대로 원문, 원어, 원래 발음을 중시하는 태도는 ‘원어주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표기 역시 원어주의로 흐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동환: 그런 식이라면 고전 번역도 하지 말아야죠.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런 표기가 함께 통용된다면 모순이지요. 내친김에 제안하자면, 새로운 문물이 들어올 때 이것을 가리키는 명칭을 우리말로 정해서 통일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의 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있다고 해도 영향력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기구에서 정해서 약속을 하고, 강력히 지키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통일되어 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인문학 분야에서도 용어 통일이 안 돼서 늘 헷갈리는 실정이고, 자연 과학 학술 용어 같은 것은 전부 영어이고요. 이런 것부터 강력히 고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우리가 한글 전용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한글 전용은 아닙니다. 한자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한자어를 쓰고 있는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한자의 조어력이 뛰어난데, 한자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 이것이 제 부탁이지요.

차익중: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전 번역 일을 맡으신 분들 모두에게도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동환: 고맙습니다.

